

투데이 칼럼

효과적인 말하기 실전 기법

요 사이 모든 영역에서 소통의 문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화두가 되었다. 흔히 의사소통은 입말, 몸말, 글말로 행하여지지만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기법과 비언어적 기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어적 기법보다는 비언어적인 기법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결과 몸짓이나 표정, 자세,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비언어적 기법이다.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한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자제는 편안하게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좋다. 고개를 뒤로한 고압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어 따뜻한 분위기를 해친다.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향한 채 이야기한다.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시선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강조되어 전달된다. 물론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피해야 한다.

표정은 여유 있는 은은한 미소가 좋으며 몸짓은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순동작이나 몸짓을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자. 음성은 딱딱하지 않는 따뜻한 목소리가 좋다. 지나치게 큰소리, 높은 음역의 말소리는 피하자. 듣는 이의 반응은 말하는 이의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음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어떤 주장도 그 말을 하는 방법에 담긴 비언어적 표현의 확인 만은 못하다.

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의 변화를 주변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는는 목소리의 높낮이, 강도, 강세, 속도, 크기 등이 표현된다.

둘째, 언어적 기법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기법은 대화의 분위기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다. 하지만 역시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언어적 기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기법을 활용해 보자.

① 남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가 그러는데....."식으로 남의 의견을 내세우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기 쉽다. "나의 의견은 어떻다", "나는 어떻게 느꼈다"라고 표현해보자.

② '너 대신 '나'를 사용한다. "너는 왜 항상 약속을 안 지키나?" 보다는 "나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걱정이다"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 특히 청소년의 행동과 관련된 대화를 하

는 경우,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해 느낀 대로 말해준다.

④ 가능한 짧게 이야기한다. 결론이나 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요령이다.

⑤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된다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가며 말하는 것이 좋다.

⑥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한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데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라는 식의 말을 자주하는 것이 좋다.

⑦ 칭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이야~ 조리 있게 의견을 잘 표현하는구나.", "잘 잘했어", "그때 할 기뻐한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은 보다 개방적인 대화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러므로 스피치 평가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요소인 내용(what), 연출(how), 전달(who)이므로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잘 연출하여 상대방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잘 연출하여 철저한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욕구를 채우면 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레바논 시위대 "내 예금으로 자산 불리지마"



23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중앙은행 앞에서 익화하는 경제와 금융 상황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하는 조지아 활동가들



23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조지아 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국기를 들고 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인민들을 포섭해 친러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해당 인사로 예브겐 무리예프 전 하원 의원을 지목했다.

사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 시위를 벌였다.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직후여서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9월 발사한 화성-8형과 탄두 모양이 달라졌다. 화성-8형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속도도 빨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700km 표적 명중 주장은 성능이 과장됐다고 보고,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북원 착공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정부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국가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동당 전원회의는 5대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농업과 인민 복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주식을 육수수에서 흰 쌀밥과 밀가루로 바꾸고, 농민이 국가에 진 빚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국과 미국을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가 폭락한 넷플릭스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전 세계 인이 '집콕'에 몰두하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국내에서도 10명 중 7명이 이용하고, 10명 중 3명은 '돈을 내고' 볼 정도다.

특히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넷플릭스의 성공을 바라보며 모든 OTT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경쟁의 필수 요소로 여긴다. 최근 넷플릭스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다.

넷플릭스(Netflix)는 세계 최대의 미국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다. 1997년 설립됐으며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

넷플릭스(Netflix)란 '인터넷(Net)'과 영화를 뜻하는 '픽스(Picks)'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유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사업자로 2015년 기준 세계 50여 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가입자는 6,500만 여명에 이른다.

2016년부터 130개 국가에 진출을 선언했다. 한국은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했다. 처음 넷플릭스는 비디오와 DVD 대여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하나다. OTT란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셋톱박스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TV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콘텐츠 유통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방송 서비스와 비교하면 이용 시간이 자유롭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특징 중 하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추천 알고리즘이다.

문제는 가입자 성장세가 멈추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실탄이 부족한 국내 OTT들은 더욱 난감하다. 시선을 잡아 끌만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provid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message about supporting the newspaper and a list of regional centers.